소통 · 통합 시정 추진… 27만 모두의 시장이 될 것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 시민으로부터 74.7%라는 높은 지지를 받아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익산시장에 당선되었다.
시장 당선 후 '소통 통합 시장'을 꿈꾸며 특정 진영의 시장이 아닌 27만 모두의 익산시장이 되겠다고 말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시정 인수에 여념이 없는 최 당선인을 만나 시정 구상에 대해 들어 보았다.

Q1. 어렵게 익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 당선 소감과 함께 민선 9기 익산 시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익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74.7%라는 압도적인 지지는 침체된 익산을 다시 깨우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대를 열어달라는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자 승리입니다. 오늘의 결과 앞에 기쁨보다는 익산의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민선 9기 익산 시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과의 약속 실천'과 '철저한 실무 행정'입니다. 보여주기식 정치를 과감히 탈피하고, 말이 아닌 결과로, 약속보다 성과로 증명하는 책임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진정성 있는 시정을 약속드립니다.

Q2. 당선인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익산 대전환'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 계획입니까?

- 시민들이 삶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바로 '멈춰 있던 익산 경제의 강력한 재도약'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의 구현'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선 9기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통상적인 조직을 넘어 미래전략, 청년도약, 산업혁신, 시민행복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입니다.

취임 즉시 '익산 경제회복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정체된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성장동력을 다시 켜겠습니다. 또한, 선거 막바지 있었던 관내 화재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재난 취약 시설의 안전 보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좋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눈부신 변화"를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Q3.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내신 경험을 바탕으로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 교통 플랫폼을 공약하셨습니다. 익산역을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 KTX 익산역은 호남 교통의 관문이자 익산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히 '거쳐 지나가는 역'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차관 시절 구축했던 국가 교통망 설계 경험과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100% 활용해 익산역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익산역 선로 상부 공간 등을 활용한 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여 KTX·SRT와 시내외 버스가 완벽하게 연계되는 '메가 교통 플랫폼(복합환승센터)'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역세권 주변으로 대형 상업시설, 첨단 업무 오피스, 청년 주거 공간이 결합한 '호남 최대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를 조성해 익산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Q4. 익산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입니다. 청년들이 익산에 정착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일자리와 주거, 정주 여건이 사슬처럼 묶여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일회성 지원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수위에 '청년도약' 분과를 독립 신설했습니다.

우선 미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펀드와 공간 제공을 늘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정착 생태계를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Q5. AI·바이오·반도체 산업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익산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우리 익산이 가진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은 '지정학적 물류 인프라'와 기존 '농생명·식품 기반 산업과의 융복합 시너지'입니다. 익산은 호남 최대의 교통 허브이자 새만금의 배후 도시로서 물류 이동의 최적지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유일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중심축으로 삼아 단순 제조를 넘어선 AI 바이오 및 농생명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결합할 것입니다. 풍부한 원천 기반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반도체 메커니즘을 융합하는 강력한 유치 전략을 전개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시절 축적한 산업단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유망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맞춤형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실천
철저한 실무 행정 등이
민선 9기 시정운영 가치

익산역 패러다임 탈바꿈
RE:IKSAN 프로젝트 통해
쇠퇴한 도시에 '활력'

시민주권시대 확실한 정착
위해 제도적 기반 다질 것

Q6.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익산을 주거·교육·물류·산업 기능을 갖춘 배후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익산이 새만금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익산은 새만금의 신항만, 신공항, 그리고 내륙 교통망을 연결하는 '전북 북부권 경제 중심도시이자 핵심 물류 거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새만금의 개발 온기가 전북 전체, 특히 우리 익산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직결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 모빌리티 투자와 긴밀히 연계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완성차 제조가 아닌 그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우리 익산의 기존 제조업 기반을 '친환경 에너지 부품 및 첨단 소재 산업 클러스터'로 빠르게 체질 개선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산업적 혜택을 배후에서 주거·교육·물류 기능으로 완벽하게 받쳐주는 중추적인 상생 거점이 될 것입니다.

Q7. 'RE:IKSAN 프로젝트'와 제2혁신도시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혁신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RE:IKSAN 프로젝트'는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완전히 재창조(Re-creation)하는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혁신의 핵심은 '원도심 재생 뉴딜 사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공동화된 구도심에 청년 주거, 창업 공간, 문화 인프라를 과감히 확충하여 골목상권과 원도심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매력적인 로컬 브랜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국토부 차관 시절의 국책사업 추진 전문성을 결합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제2혁신도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구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Q8.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생 현장을 보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지역 골목상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의 '산업혁신' 및 '시민행복' 분과를 통해 단기적 자금 수혈을 넘어선 종합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특례보증을 과감히 확대해 경영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익산 다이로움 카드를 비롯한 지역화폐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또한 구도심 재생과 연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골목 안쪽까지 흘러들도록 만들겠습니다.

Q9. 스마트농업과 햇빛연금 정책을 공약하셨는데, 농업도시 익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 농업은 익산의 뿌리이자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 산업입니다. 이제 농업도 단순 노동이 아닌 기술과 자본, 재생에너지가 결합한 '경영형 농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우선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업 단지를 대폭 확대하고 신규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햇빛 연금' 정책은 농촌의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농가와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연금 형태로 돌려드리는 상생 모델입니다. 농업 경쟁력은 높이고 농가 소득은 다변화하여 '돈 버는 농촌, 살고 싶은 부자 농촌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Q10. 익산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 사업은 무엇입니까?

- 우리 익산은 찬란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러 왔습니다. 복합환승거점으로 재탄생할 익산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관광의 유기적 연계'를 이뤄내 체류형 관광도시로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백제 핵심 유적지를 가상현실(VR)과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젊은 층도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형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한옥 체험단지나 로컬 푸드와 연계한 문화 체험형 숙박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낮에는 찬란한 역사를 보고 밤에는 화려한 문화를 즐기며 먹고, 자고, 머무는 호남 최고의 문화관광 허브를 완성하겠습니다.

Q11. 시민공약평가단, 시민참여예산제, 정책공감 플랫폼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만드는 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민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 계획이십니까?

- 행정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며, 시청은 시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기관이어야 합니다. 저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 주권 시대'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공약 이행 과정을 상시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민공약평가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활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시민참여예산제'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모바일과 웹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공감 플랫폼'을 즉시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재정 운용 현황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여, 관성과 독단을 깨고 '시민이 직접 보고 참여하며 변화를 체감하는 투명 시정'을 제도화하겠습니다.

Q12. 당선인께서는 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30년 후, 당선인께서 꿈꾸는 익산은 어떤 모습이며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 제가 꿈꾸는 30년 후의 익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소외 없이 안전을 보장받는 당당한 명품 안심 도시'입니다. 과거의 정체와 소외를 완전히 씻어내고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교통·문화의 명실상부한 중추 허브로 우뚝 선 모습입니다.

훗날 시민들에게 최정호라는 시장이 '익산 대전환의 초석을 확실하게 다진 시장', '말이 아닌 눈부신 성과와 결과로 고향에 헌신했던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년의 임기 동안 30년, 50년 후의 후손들이 먹고살 미래 성장판을 짜놓겠다는 각오로 원대한 시정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겠습니다.

Q13. 오랜 공직 경험과 도전 정신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 지지자들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대립과 치열한 경쟁은 이제 뒤로하고, 오직 익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시민분들의 뜻과 매서운 비판 역시 겸허히 수용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시장이 아닌, 27만 익산 시민 모두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취임 첫날부터 시정의 가장 엄숙한 과제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공정한 경쟁을 펼쳐주신 다른 후보님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멈춰 있던 익산의 시간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할 위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 모두 손잡고 함께 나아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춘 기자

▶ 최정호 당선인이 걸어온 길

국토 · 교통 · 도시개발 분야 '한우물' … 국가 발전 헌신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7만 익산 시민들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두루 거치며 행정 전문성과 정책 추진력을 완벽하게 검증받은 인물이다.

1958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최 당선인은 금오공고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 행정가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한 이래, 40여 년간 국토와 교통, 도시개발 분야의 한길을 걸으며 국가 발전에 헌신해 왔다.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를 거치며 토지정책관, 건설산업과장, 철도·항공정책 등 핵심 국가 기간산업 정책을 총괄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임명되었으며, 재임 시절 국가 교통망 구축과 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합리적인 뚝심을 가진 '실천형 공직자'로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중앙무대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고향 전북과 익산을 위한 현장 행정으로 이어졌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었고, 국립항공박물관 초대 관장을 거쳐 최근까지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역개발과 주거복지 사업의 실무를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시민 한 분 더 만나고(多逢), 더 듣고(多聞), 현장을 더 살피겠다(多視)는 '삼다(三多) 철학'을 철저히 실천해 온 최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자만하지 않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시정 인수에 몰두하고 있다.

평생을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그가 풍부한 행정 네트워크와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펼쳐 보일 '익산 대전환'의 비전이 어떤 값진 결실을 보게 될지 시민들의 기대와 이목이 민선 9기 익산시정으로 집중되고 있다.